

‘호남신당’ 속도전...“문 잡고 결판”

중도개혁 3당 모여 제3지대 통합 위한 끝장 협상 박주현 의원 “국민에게 신뢰 얻는 통합당 될 것”

중도개혁 성향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제3지대 통합을 위한 끝장 협상에 들어갔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이어 기호 3번 정당으로 올라서겠다는 각오다.

각 당의 통합추진위원장 역할을 맡은 박주현 바른미래당·유성엽 대안신당·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 통합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신속한 통합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재훈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회 부위원장장과 황인철 대안신당 사무부총장, 김종배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위원장도 배석했다.

유성엽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물이나 빵을 넣어달라. 여기서 결판이 날 때까지”라며 “조속한 결판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

유 의원은 “우리는 오늘 통합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분열을 거듭한 점을

사과드리며,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3당 통합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의원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고, 정치는 이미 죽었다”며 “3당이 조건없이 ‘육동자’를 만들어내는 통합선언 발표가 있길 기대한다”고 결기를 드러냈다.

박주현 의원 역시 “만드시 3당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고, 만일 (유권자에) 선택지를 드리지 못한다면 정당투표를 기권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통합을 통해 기호 3번 정당으로 올라 서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의 감정이나 시시비비, 국고보조금 여하 등을 뛰어 넘어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부연했다.

이날 첫 회동은 1시간40분가량 진행되다 오후 3시에 재개하기로 했다. 오전 회동을 중단한 뒤 박주현 의원은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각각 의견도 취합을 해야 해서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합



박주현 바른미래당 대통합개혁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통합추진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통합추진특별위원장, 박 위원장,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의 되는 대로 숨김과 보탬없이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후 회동이 끝나도 통합 결론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주현 의원은 “세부적인 사안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은 자주 만나 (의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늘 안에 결판이 나느냐”는 물음에 그는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협상을 분수령으로 오는 15일 전까지 통합에 성공하

면, 원내교섭단체 지위(소속 의원 20명 이상)를 회복,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최대 86억원의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3당이 통합하면 바른미래당 17석, 대안신당 7석, 평화당 4석 등 총 28석이 돼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얻게 된다. 탈당을 고심하는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의원 7명을 제외하더라도 21석을 유지하게 된다.

한국·새보수 ‘3+3회의’ 합당 카운트다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이르면 오는 13일 수입기관 합동회의의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나선다. 양당에서 각각 세 명의 의원이 참여해 실무논의를 이끈다.

한국당과 새보수에 따르면 양당은 각 3명씩 수입기관 합동회의에 참여할 의원들을 선정했다. 한국당은 김상훈, 송연석 의원이 확정됐다. 나머지 한 명은 조만간 지정할 예정이다. 새보수당에서는 오신환, 지상욱, 정운천 의원이 참여한다.

정당법 19조에 따르면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될 때에는 합당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입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한국당은 오는 13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수입기관 합동회의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당은 이르면 13일 오후, 늦어도 14일에는 신설합당을 위한 실무 논

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연주 의원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도 실무논의에 참여한다.

새보수당 관계자는 뉴스와 통화에서 “한국당이 13일째 전국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당 (수입기관 합동회의) 구성을 마치면 논의에 나설 것이다. 전진당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 현재 공식적으로 수입기관 합동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일단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 테이블을 통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새보수당, 전진당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각 당 의원들을 통해 실무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기관 합동회의는 구성 직후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한다. 실무 논의를 하는 만큼 공개보다는 비공개로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당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진보·NGO 영입 ‘0명’...달라진 민주당

‘사법농단 폭로’ 관련 판사 3명 등 법조인만 20%

4·15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가운데 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는 한명도 없었다. 이념보다는 전문성과 휴먼스토리에 관심을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조인, 과학자, 금융인 등 전문직이 많았고 청년, 장애인, 다문화 등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계층도 포함됐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총 20명의 인재영입에서 참여연대 등 진보시민단체 출신 영입 인사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대선, 총선 등 인재 영입 계절이면 진보 시민단체는 민주당의 인재 광맥 역할을 해왔다.

20대 총선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당시 대표는 김민영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 권미혁 여성단체협의회 대표, 박주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등 3명을 영입했었다.

19대 총선에서도 전순옥 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당시 참여성노동복지대 대표) 은수미 성남시장(당시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종학 전 중기벤처부

장관(경제정의 실현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 등 영입돼 국회에 입성하기도 했다.

당내에선 참여연대 등 대표적 진보 시민단체 출신에 대한 영입을 제안했지만 실제로 성사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 시민단체 영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류 시민단체는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됐다. 당내 의견도 없지 않다”며 “꼭 시민단체 활동을 해야 소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는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전했다.

오히려 ‘울사’로 불리는 판·검사 출신 영입인재는 늘었다. 고검장 출신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 ‘사법농단 폭로’ 주역인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이탄희 전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전략공천 지구 등에 투입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태영호 “북 선원 복송...의정활동 결심”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11일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좌절을 느꼈으며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해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복송을 꼽았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태 전 공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두 명의 청년이 범죄자나 아니냐를 논하기에 앞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 좌절감을 느꼈다”며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내가 어떻게든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확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정부는 지난해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내려왔다는 이유로 조사 5일 만에 판문점으로 강제 복송하려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